

WOOD *living* CULTURE

KOREA

보그 한국판
M A R
2 0 0 9
별책부록



HOME

SWEET HOME

뉴욕, 파리, 밀라노, 서울 패피들의 스위트 홈

IT LOVE NY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는 엘리 타하리와 로리 타하리. 이 스타일리시한 부부의 안식처인 소호의 펜트하우스엔 그들의 공유하는 꿈과 사랑, 안락한 삶이 주는 여유가 가득하다.
Photographed by Juneyup Yi



인테리어 디자이너 크리스찬 리에그르가 디자인한 타하리 부부의 트리플렉스(Triplex) 속 2층에 자리한 거실. 벽면에 자리한 제임스 나레의 작품이 멋진 이곳은 천장의 원목 빔과 기둥들로 재미를 주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거실 옆에 자리한
다이닝룸의 14명이 너끈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한국의 온돌처럼 바닥이 따뜻한 엘리 타하리의
서재 겸 옷장. 거실 벽면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책들. 소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뷰를 가진 욕실. 제임스 나레의 작품
앞에서 함께한 로리 타하리와 엘리 타하리 부부.





재작년 센트럴 파크를 마주하고 있는 트럼프 타워 51층에 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소호의 중심지로 이사온 엘리 타하리(Elie Tahari) 부부. 주중엔 소호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과 주말엔 쇼핑을 하기 위한 뉴욕커들로 늘 붐비는 집 주변은 엘리 타하리의 소호 매장과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건물의 맨 위층인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엘리 타하리와 로리 타하리의 집은 그 규모(864㎡, 약 260평)와 인테리어에서 무엇보다 삶의 여유가 그대로 느껴진다. 실제로 그들이 살기 전, 이곳은 세계 최고의 언론 독재자 루퍼트 머독과 그의 부인 웬디 머독 부부가 살았던 곳.

“이 공간은 정말 아름다워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로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엘리 타하리가 말했다. 과연, 전체 3층 가운데 중층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거실의 인테리어는 인상적이다. 머서 호텔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것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찬 리애그르가 직접 인테리어를 맡았다. 제임스 나레의 커다란 작품 <Big Brush Stroke>가 걸려 있는 하얀 벽 아래로는 미니멀한 벽난로와 낮은 책장이 자리하고 있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높은 천장은 원목 빔이 입체적으로 채워져 있다. 촬영 당일, 뉴욕 하늘에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아치형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거실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데이 베드가 놓인 거실의 한쪽 파트를 지나면, 14명이 앉을 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그리고 다시 그 옆으로는 부부의 침실과 욕실, 옷장이 차례대로 미로같이 놓여 있다. 인상적이었던 곳은 하얀 대리석 욕조가 놓여 있는 욕실. “이곳의 프렌치 도어를 열면 욕조에 누워 소호의 뷰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죠.” 로리가 말했다. 특이한 곳은 엘리의 옷장 겸 서재. 자그만 소파가 놓인 이곳의 바닥은 대리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온돌처럼 따뜻했다. 한 층 아래로 내려가면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리닝룸이 있다. “저희 아들 제레미와 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또, 맨 위층으로 올라가니 사방이 유리로 만들어진 요가룸을 비롯, 체육관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게다가 집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원목 바닥의 테라스까지. 35년 전 무일푼으로 미국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청년의 극적인 성공을 이 집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농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 혹은 아이들로 가득한 그런 농장 말이죠.” 물론 당장 뉴욕의 패전계를 떠나 이스라엘의 농부가 될 생각은 없다. “어쩌면 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깐요.” 로리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다. “전 뉴욕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평생을 그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쯤에서 던져야만 하는 질문 하나.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힘들진 않나요? “물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하하.” 엘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로리는 언제나 제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함께 결정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결혼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두 개의 삶이 완벽한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취재 / 윤애리(뉴욕 통신원) 에디터 / 손기호

